

101살, 인생의 가치를 깨달은 인생 1살

김포공항에서 1살짜리가 비행기를 930번씩이나 탔다는 작은 해프닝이 벌어졌다. 직원이 확인한 결과, 컴퓨터가 두 자리 숫자만 읽게끔 설정돼 있어 1920년생인 노년 남성을 1살로 인식한 것이다. 이 해프닝의 주인공은 올해 만 101세가 된 김형석 연세대 철학과 명예교수이다.

김형석 교수는 대한민국 제1세대 철학자로 불릴 만큼, 삶에 대한 깊은 관조와 함께 ‘굵직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았다. 특히 그는 진정한 ‘행복’의 가치를 아는 사람을 정의하였다. 김형석 교수가 말하는 행복한 사람이란 정신적 가치를 아는 사람, 즉 만족을 아는 사람이다. 또한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자는 행복할 수 없다. 이기주의자는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사람으로, 그릇이 작기 때문에 담을 수 있는 행복도 작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행복의 가치를 깨닫게 되기까지 그는 장장 10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다. 그는 30대 중반 나이에 연세대 교수가 되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청년이

되면 인생이 끝나는 줄 알았다. 하지만 가장 일을 많이 하고, 행복을 느꼈던 때는 60살부터였다. 그 나이가 사과나무가 사과라는 열매를 맺듯이 인생의 사회적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때인 것이다.

“스스로 늙었다고 생각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은 잘못된 인생을 사는 것”이라며 김형석 교수는 신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도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같은 나이라도 일하는 사람은 건강하고, 노는 사람은 건강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또한 직업적인 일이나 공부가 아니라 독서와 취미 활동을 하면서 계속 공부하는 사람이 가장 건강하다는 것이다.

김형석 교수가 하는 말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처럼 당연하게 들린다. 하지만 그의 말은 그가 살아온 100년의 삶을 우려낸 묵직한 통찰이다. 무엇보다도 그 또한 건강한 인생을 위해 계속해서 공부하고 행복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을 주고 있다. **KMIF**

